

# 高麗時代 · 木造建築

金正基

## 序 言

高麗時代는 韓國建築史上 매우 特徵的인 時代였다. 우선 高麗時代 宮闕은 高句麗의 宮闕이나 推定되는 百濟나 新羅에서의 宮闕建築의 構成形態인 宮闕의 主要建築物이나 附屬建築物이 基本的으로는 南北中心軸에서 左右對稱으로 配置되는 것과는 달리 牧丹峰 稜線을 따라서 아래서 위로 올라가면서 配置되는 異色の인 것이었다. 또 寺刹建築에 있어서도 從來의 平地伽藍에서 이루어졌던 伽藍 中心部가 中心軸을 基準으로 左右對稱으로 構成되고, 一般俗人들의 出入이 制限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聖域인 中門에서 시작되는 長方形의 廻廊 內部에 塔, 金堂을 위주한 主要法堂을 配置하고, 寺刹의 入口인 南門에서 시작되는 垣牆이 둘러싼 內部와 廻廊과의 사이에 여러 附屬的 建築物이 配置되고 僧侶들의 日常活動空間이며 俗人들의 出入이 許容되는 嚴格히 區劃되고 整然하게 構成된 伽藍에서 寺刹을 山地에 經營하게 되어 그 地形的 制約에 의한 必然的인 變革이라고는 할 수 있겠으나 重要法堂을 非對稱으로 適切한 位置에 配置하고 俗人들의 出入이 法堂에까지 許容되는 寺刹로 점차 變化하고 近世의 普遍的인 伽藍形式과 寺刹經營方式의 基礎를 定着시키게 된 時代였다.

個個의 建物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特徵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石塔의 나라」라고 別名지어질 정도로 많은 石塔이 建立되었고, 또 全

國에 걸쳐 그들 石塔이 남아 있거나, 三國時代末에 시작된 石塔建立이 統一時代에는 所謂 新羅系 石塔만이 建立된 建塔活動이 高麗時代에 들어서서는 다시 新羅系 石塔은 勿論 百濟系 石塔이나 高句麗系 石塔일 것으로 推定되는 石塔들이 일제히 復活하고, 또 이를 系列間的 樣式的 混雜으로 形成된 石塔도 만들어지는, 多樣한 石塔相을 보이는 時代이기도 했다. 石造浮屠에 있어서도 八世紀中葉에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定型화된 所謂 八角圓堂形 形式의 浮屠에서 石燈形浮屠과 石鐘形浮屠들이 나타나 石造浮屠形式이 多樣化해지고, 八角圓堂形 浮屠 自體에 있어서도 下台石이 肥大華麗해지는 形式과 그와 달리 中台石이 雄壯해지는 등 變化가 많아 石造浮屠의 造形的인 最盛期를 맞는 時代였다.

이와 같은 建築史上의 特徵的인 現象은 木造建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高句麗와 百濟의 建築影響과 三國統一을 前後한 時期부터의 唐의 木造建築의 影響으로 定着된 新羅의 木造建築이 거의 그대로 高麗時代 前期에 이어졌으나 高麗時代 中期와 末期에는 다시 새로운 建築樣式이 高麗에 導入되어 定着되었으며 우리나라의 傳統的인 木造建築樣式的 基本이 되었고, 現在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오래된 木造建築物은 모두 이 두 樣式的 建物과 여기서 派生된 樣式的 建物뿐인 것이다. 高麗時代 初期부터 高麗時代 中期까지 많은 木造建築物이 建立되었으며 그들의 대부분이 戰火나 變亂으로 消滅하였다고는 하나, 그 時期에 建立된 木造建築物이 새로 導入된 樣式的 建物 以外에는 단 한 채도 남아있지 않다는 事實은 偶然의 結果라고만 단순히 받아들이기에는 쉽게 수긍되지 않은 심상치 않은 現象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高麗時代는 우리나라 建築史上 매우 重要하고도 特殊한 現象을 나타낸 時代였다.

여기서는 이 高麗時代의 木造建築을 주요한 建築活動의 樣相과, 비록 現存遺構는 없으나 前期에 있었던 新羅에서 이어받은 木造建築物의 樣相을 推測하고 中期와 末期에 導入된 새로운 建築樣式的 導入過程 및 그 樣式的 樣相을 考察하고 끝으로 現存하는 高麗時代에 建立된 木造建築

에 대하여 考察하도록 하겠다.

## 〔一〕 建築活動

어느 時代에 있어서도 새 王朝가 일어나면 새로운 宮闕을 建設하고 그에 따른 여러 施設의 整備로 建築活動이 活潑해진다. 高麗時代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王朝初期에는 建築活動이 活潑하였고 특히 太祖 王建을 비롯하여 歷代 王의 至極한 佛教崇信으로 寺刹의 創建도 盛行되었다. 寺刹建築 以外에도 太祖는 韓半島의 中心部인 開城 松嶽山下에 都邑을 定하여 都城의 築造와 宮闕의 經營도 活潑하였고, 北邊의 防衛를 위한 城廓이나 防壘의 造營에도 힘을 썼고, 그와 같은 活動은 高麗中期까지 繼續되었다.

高麗時代에 있었던 主要 建築活動은 대강 다음과 같다.

아직 新羅의 餘勢가 남아 있던 太祖 元年(九一八年)에는 新羅時代에 創建된 太安寺와 法住寺를 重修하였고, 太祖에 의한 本格的인 建築活動은 그의 即位 二年부터 시작되었다. 太祖 二年(九一九年) 一月에 都邑을 定하고 滿月臺의 宮闕 建立을 시작하였고, 一〇月에는 平壤城을 築造했으며, 그해에 王輪寺를 비롯하여 法王·慈雲·文殊 및 圓通寺 등 十大寺를 연이어 創建하여 國家鎮護의 精神的 바탕으로 삼았다. 또 그의 四年에는 一〇月에는 玉冠山에 大興寺를 創建하고, 五年 七月에 西京(平壤)에 官府를 設置하고 在城을 築造했고, 一〇月에는 都城의 西北쪽에 日月寺를 創建했다. 六年(九二三年)에는 廣照寺, 八年에는 興國寺를 創建하고 一〇年(九二七年) 一一月에는 智妙寺를, 一二年에는 龜山寺를 創建하였고, 그의 一三年 八月에는 甄萱에게 人質로 잡혔다가 被殺된 堂弟 王信의 冥福을 爲하여 安和禪院을 創建하였다. 太祖 一八年(九三五年) 一二月에 新羅 敬順王이 投降하여 名實共히 韓半島의 主權者가 되자 다음 해인 一九년에는 彌勒寺, 內天寺, 艷陽寺 등을 연이어 創建하여 太祖 一代에 開京을 中心하여 高麗를 一大佛敎王國으로 만들었다. 太祖 二三年(九四〇年) 七月에는 新興寺를 重修하고 그 곳에 功臣堂을 建立

하였고, 一二月에 開泰寺를 完工했다. 그러나 太祖의 晩年에는 빈번한 寺刹의 創建에 起因한 많은 弊害를 깨달아 그의 二六年(九四三年) 四月에는 朴述熙에게 訓要十條를 親授하여 後孫들의 指針으로 삼게 했다. 訓要에는 佛敎를 信奉하고 守護할 것을 命하고, 다음으로 寺刹을 함부로 創建하는 일은 地德을 損傷하게 되니 憂慮되는 바라하여 寺刹 創建을 삼가도록 하였다.

二代 惠宗과 三代 定宗은 在位 期間이 짧았고 또 太祖의 訓要 影響인 지 눈에 띄는 建築活動이 없었다. 四代 光宗은 그의 三年(九五二年)에 城南에 太祖 願堂으로 大奉恩寺를 創建하고 王城 東郊에는 先妣 劉氏의 願堂으로 佛日寺를 創建하고 그의 六年에는 先妣 追福을 위하여 崇善寺를 創建했다. 또 一二年(九六一年)에는 修營宮闕都監을 設置하여 宮闕 補修에 힘 쓰고, 一四年 七月에는 歸法寺를 創建했다. 一九年(九六八年)에는 弘化寺·遊岩寺·三歸寺를 연이어 創建하였고 安朔鎮·長平鎮 등 邊方의 여러 곳에 城郭을 築造하고 都城도 修築하는 등 築城活動도 活潑하였다. 또 光宗代에는 高德의 僧侶에 의한 創寺活動도 시작되었으며 安心寺나 白岩禪院 등의 創建을 보았다.

六代 成宗 二年(九八三年) 五月에는 博士 任老成에게 北宋에서 大廟堂圖와 社稷堂圖 및 文宣王廟圖 등을 가져오게 하였고, 四年에는 邸宅을 喜捨하여 寺刹을 만드는 일을 禁하고 있는 事實이 있으므로 이 時期에 는 記錄에 남지 않은 捨家爲寺하는 일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다. 그의 八年 四月에는 처음으로 大廟를 建立하기 시작하고 一一年 一二月에 落成케 했고, 一〇年 閏二月에는 처음으로 社稷堂을 세운다. 成宗代에는 역시 鴨綠江 沿岸에 關城을 築造하는 등 築城活動도 계속되었다. 七代 穆宗元年(九九八年)에는 雲興寺를 重建하고 定光寺라고 改稱했고, 三年에는 眞觀寺와 崇敎寺를 創建하고 六年에는 十王寺를 建立하였고, 一〇年(一〇〇七年)에는 眞觀寺에 九層塔을 建立했다. 穆宗代에도 各地邊方의 築城活動과 城郭 修築活動이 繼續되었다. 八代 顯宗三年(一〇一二年) 五月에는 慶州의 朝遊宮을 헐어 그 材木으로 皇龍寺의 九層木塔을

修築했고, 그해 一二月에는 重光寺를 創建했다. 五年에는 松都 宮闕의 重修工事が 完工되었다. 九年 六月에는 都城 近郊에 玄和寺를 創建하여 考妣의 冥福을 祈願하게 했고 一二年에는 旅行의 便宜를 위하여 天安에 弘慶寺를 創建하였다. 이와 같은 연달은 國家的인 創寺活動으로 民弊가 極甚하여 輔官이나 諫官의 諫止에도 不拘하고 王의 一八年(一〇二七年)에는 慧日寺와 重光寺를 都城內에 建立하기도 했다. 이 보다 앞의 一五年에는 開京에 五部坊里를 設定하여 都城 內部를 整備하였고, 二〇年 八月에는 都城에 羅城을 築造 完成하였으며, 역시 全時期를 통하여 邊方 築城이 活潑했다.

一〇代 靖宗代에는 寺刹의 創建보다 邊方의 築城이 더 많았고 이以後는 築城活動이 적어진다. 아마도 그동안 계속된 邊方 防衛를 위한 築城이 一段落된 것으로 보인다. 寺刹建立은 靖宗九年(一〇四三年)에 宣和寺와 松林寺가 創建되고 一一年에는 沙峴寺를 始創하는데 끝쳤다. 一代 文宗五年(一〇五一年)에는 從來의 寺刹의 重建이나 創建의 繼續으로 일어난 民弊가 累積되어 民心을 잃게 될 것을 念慮한 諫官의 請을 받아들여 農閑期를 利用하여 南京(漢陽)에 重興寺, 開京에 大安寺, 金堤의 大雲寺등을 創新 補舊하게 하였고 一〇年 二月에는 德水縣에 興王寺를 創建하여 二一年 一月에 完工을 보았다. 一八年에는 慶州 皇龍寺 九層木塔을 修理하였으며, 二二年에는 梁州에 南京新宮을 建立했다. 또 文宗代末頃에는 南原의 萬福寺가 創建되었으나 그 創建緣由는 確實치 않았다. 文宗의 建築活動 가운데 가장 重要한 活動은 興王寺의 創建經營이었다. 興王寺 主殿은 三層殿으로 傳하고, 二一年에 完工된 뒤에도 二四年에 慈氏殿을 新築하고 三二年 七月에는 金塔을 完成했다고 한다. 寺刹의 規模도 모든 堂塔이 二, 八〇〇間이나 되었다고 하니 그 規模의 雄壯함을 짐작할 수 있다.

一二代 宣宗은 元年(一〇八九〇) 八月에 國學을 修理하고 또 王后에 의하여 都城 西쪽에 國淸寺를 創始하고 一八年間의 工事を 통하여 完工을 보았다. 一〇年에는 弘護寺를 城東에 創建하였다. 一四代 肅宗代에

는 그의 元年(一〇九六年) 慧德王師에 의하여 金山寺에 廣慶院을 짓 慶州 皇龍寺 九層木塔이 重修되기도 하였다. 六年에는 洪圓寺의 大藏堂과 九祖堂이 完工되고 七年에는 西京의 興福寺에 十王堂이 建立되었다. 九年에는 南京宮闕의 延興殿, 天授殿, 南明門, 北寧門 등이 完成되어 南京宮闕의 整備가 마무리되었다. 睿宗代에는 그 元年(一一六六年)에 皇龍寺의 重修를 비롯하여 天壽寺, 安和寺, 慶天寺 등의 重修 또는 完工이 一三年까지에 이룩되고 一七年에는 行旅의 便宜를 위하여 峰城縣(楊州) 南쪽에 惠陰寺를 創建했다. 一六代 仁宗五年(一一二七) 一一月에는 奉嚴寺가 完工되고, 또 西京의 宮闕을 重修하여 七年 二月에는 새로 지은 太和宮이 完工하였다. 九年 八月에는 西京 林原에 宮城을 짓고 그 속에 八聖堂을 두었으며, 二〇年에는 奉恩寺 重修工事が 完工되기도 했다.

一七代 毅宗 一一年(一一五七年) 四月에는 宮闕의 東쪽에 養怡亭을 建立하고 그 지붕에는 靑磁기와를 이었다. 一二年 九月에는 白州에 別宮인 重興闕을 建立하기도 하고, 王은 佛事를 즐겨 여러 곳의 寺塔을 建立하기도 했다. 一八代 明宗代에 들어서자 그의 元年(一一七一年) 一〇月에 開京宮闕에 火災가 일어나 宮殿建物에 大部分이 燒盡되어 그의 再 建築活動이 계속되었다. 그 사이에도 五年에는 海岸寺를 建立하고 毅宗의 眞影을 奉安케 하고, 다시 一一年 二月에는 宜孝寺(吳彌院)에 眞殿을 建立하여 毅宗의 眞影을 이곳으로 옮기게 했다. 宮闕의 重建工事は 一二年에 穆親殿, 麗正宮 등의 主要 宮殿이 完工되었고 一六에는 麗景門이 落成되어 重修工事が 一段落되었다.

一九代 神宗부터 熙宗, 康宗代에는 눈에 띄는 建築活動은 없었고, 단지 熙宗七年(一一二一年)에 萬德寺가 創建되고 康宗元年(一一二二年)에는 眞覺國師에 의하여 海南의 花芳寺가 創建되었을 뿐이다.

二三代 高宗代에는 蒙古의 浸入으로 都邑을 江華에 옮김에 따라서 宮闕建立 등의 建築活動이 國難中이기는 하였으나 活潑하지 않을 수 없었다. 亂前의 建築活動으로는 高宗 一〇年(一一二三年)에 高宗三年에 있었던 契丹의 亂으로 불탄 妙香山普賢寺의 再建이 있었고 一二年에는 乾

元寺創建이 있었다. 一九년에는 江華島로 遷都하여 江華都邑의 整備와 官衙建物들이 建立되었고, 江華都城의 內·外城을 築造했다. 이 時期에 있었던 韓國建築史上特記할 만한 事件으로는 慶州 皇龍寺의 殿塔이 高宗 二五年 國四月에 蒙古兵에 의하여 燒盡되어 다시는 重建되지 못했던 事實이다. 이 時期 以後에는 오랫동안의 戰禍와 蒙古의 抑壓下에 國力이 衰退하고 建築活動이 低調하여 볼 만한 것이 없었다. 高宗三〇年 七月에 江華에 興國寺를 建立하고 三二年에는 權臣 崔怡에 의하여 禪院寺가 創建되었으며, 三七年에는 開豊郡 昇天府에 宮闕을 建立하고, 四五年에는 麼尼山에 離宮을 짓고 三郎城 神尼洞에 假闕을 建立하는 등의 일이 있었다.

二四代 元宗三年(一二六二年) 一〇月에는 彌勒寺(新興寺)와 功臣堂을 重建하였으며, 二五代 忠烈王二年(一二七六年) 一二月에는 王妃인 魯國 大長公主를 위한 新宮建立에 元나라 工匠을 請하였다. 이에 의하여 建立된 宮殿建物이 우리나라 多包樣式的 建物의 시작이며 그 構造形式은 中國의 그것과 꼭 같은 것이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忠烈王五年에는 新宮을 竹板洞에 세우기 시작하여, 六年에는 廉承益에 命하여 玄和寺 佛殿을 造築하게 하고, 八年에는 妙蓮寺를 創建하는 등 亂後의 新秩序 確立에 힘썼다. 王의 三四年에는 修德寺大雄殿이 建立되었음을 그의 墨書銘에 의해 밝혀지기도 했다. 二六代 忠宣王三年(一三二一年) 九月에는 元의 晉王의 願利인 興天寺가 創建되고, 二七代 忠肅王一四年(一三二七年)에는 成佛寺應眞殿이 竣工되고, 二九代 忠穆王四年(一三四八年)에는 敬天寺十層石塔이 建立된 해이다. 恭愍王代에는 八年(一三五九年) 松廣寺國師殿이 完工되고 一二年에는 鳳停寺極樂殿의 補修가 있었고 一七年에는 玄昱國寺, 深源寺 등이 創建되었다. 王의 一五年 五月에는 王輪寺 東南에 魯國公主 影殿을 建立하고 一九년에는 여기에 觀音殿을 세웠다. 三二代 禪王二年(一三七六年) 九月에는 王輪寺 西쪽에 恭愍王의 影殿인 惠明殿을 造營했고 一〇年 閏一〇月에는 開京의 壽昌宮이 竣工되었다. 이 밖에 王의 二年에 成佛寺極樂殿이 建立되었고, 三

년에는 浮石寺祖師堂이 再建되고, 一〇년에는 釋王寺가 創建되는 建築活動이 있었다.

以上과 같이 高麗時代에 있어서의 建築活動은 그 初期에 있어서 는 都城과 宮闕의 整備와 寺刹創建 및 邊方의 防衛를 위한 城郭築造에 많은 힘을 기울였고, 특히 寺刹創建은 中期에 이르기까지 다른 時代에서는 보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國家的 寺刹創建活動이 盛行되었다. 그러나 이들 寺刹創建活動은 거의가 先王 先妣의 冥福을 祈願하기 위한 願堂으로서의 寺刹이었고, 國家安泰와 護國精神을 담은 建設的 意念에 立脚한 寺刹創建活動이 아니었다.

## 〔二〕 建築樣相

### (一) 初期의 建築

新羅에서는 새로운 建築技法과 資材로 된 發達된 建築을 처음 高句麗를 통하여 알게 되었고, 그것을 받아들여 宮闕建築이나 寺刹建築을 새로운 發達된 建築技法과 資材를 使用하여 建立할 수 있었으며, 그 建築은 高句麗와 같은 즉 中國華北地方에서 볼 수 있었던 北朝의 建築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① 이어서 新羅와 百濟와의 親交로 百濟로부터 中國 南朝의 建築的 要素도 받아들이며서 新羅의 木造建築相을 形成했을 것으로 믿어진다. ② 그 후 三國統一을 前後하여 다시 新羅는 唐과의 直接的인 交流를 통하여 唐의 木造建築의 影響이 加味된 建築으로 變貌하면서 統一新羅時代에 들어서서 는 뚜렷한 新羅의 木造建築이 確立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時期의 木造建築의 遺構는 전혀 없어 그의 樣相은 正確히 알 수는 없다. 다만 當時에 建立된 몇몇 石造建築物에 模刻된 木造建築的 要素들과 雁鴨池에서 出土된 若干의 木造建物의 部材<sup>③</sup> 등으로 짐작할 수 없는 形使이다.

이와 같은 新羅의 木造建築은 高麗時代에 들어서도 거의 그대로 繼承되었으며, 특히 纖細하고 華麗했던 高麗時代의 造形美術의 雰圍氣로 보아 建築 細部에 나타난 裝飾的 要素 등에 若干의 變化를 나타내면서 高

麗時代 中期까지繼續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역시 이 時期의 木造建物の遺構는 전혀 없고, 또 그 樣相을 짐작할 만한 具體的인 資料도 없다. 다만 高麗 中期에 南宋을 통하여 中國 華南地方에서 盛行하던 새로운 建築樣式이 高麗에 導入되기 시작한 初期에 그 影響을 加味시키면서 建立된 것으로 보이는 安東 鳳停寺極樂殿의 建物이 華南의 人 몇몇 建築樣式을 除外한 대부분의 모습이 新羅에서 이어 받아 高麗 中期에 이르는 木造建物の 모습을 남긴 것으로 判斷되어 高麗時代 前期의 木造建物の 樣相을 짐작하게 할 뿐이다.

여기서는 高麗時代 前期의 木造建築을 新羅의 木造建築과 鳳停寺極樂殿의 建築을 통하여 짐작하도록 하겠다.

統一新羅時代의 木造建築에 관해서는 新羅時代에 만들어진 字經表裝畫에 그려진 佛殿圖와 雁鴨池에서 出土된 木造建物の 部材 및 石造建築에 나타난 木造建築的 要素 등의 國內資料와 中國의 唐代 建築 그리고 日本의 奈良時代에 建立된 木造建物 등을 參考하여 그 平面構成과 기둥모습 壁體架構 등의 建物 軸부와 屋蓋架構 및 屋蓋形態 그리고 建物에 사용된 裝飾金具 등 建物全體에 대한 比較考察을 通한 復元的 研究가 있다. ④

이에 의하면 기둥은 圓柱로 確實한 배흘림기둥이며 斗拱은 柱斗 위에 枹를 끼워 枹 끝과 中央에 소로를 올린 平三斗形 斗拱과, 華嚴經佛殿圖에서 보이는 一出目的 三斗形 斗拱이 있고, 또 柱斗 위에 枹形 部材단을 끼운 形式 즉 日本에서 말하는 舟肘木이 있었던 事實도 寶林寺普照禪師影聖塔에서 알 수 있다고 했다. 柱斗나 소로의 모습은 금의 斷面이 뚜렷한 孤形으로 만들어졌고, 枹 끝은 翹頭形으로 處理되었다. 軸部나 屋蓋架構는 中國이나 日本의 경우와 큰 差가 없었을 것이고, 內外陣의 기둥 높이가 같은 경우와 內陣柱를 높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 大椽과 椽椽이 있었으며 宗樑의 存在는 不明하다고 했다. 柱間에는 人字形臺工이나 童子臺工이 있었을 可能性이 많고, 처마는 흘처마와 겹처마가 다 같이 存在했고, 대부분 椽木은 圓材로, 浮椽은 角材로 만들어졌고, 귀에는 扇子椽으로 結構했다. 지붕 모습은 맞배지붕, 팔작지붕,

우진각지붕이 있었다. ⑤

이와 같은 統一新羅時代의 木造建築은 中國 唐代의 建築과도 비슷한 形態였으며, 日本의 奈良時代의 木造建築과도 相通되고 특히 日本의 傳統的 建築樣式이라고 말하는 所謂「和樣」이 統一新羅時代의 木造建築을 바탕으로 삼은 것임은 日本에서 말하는 舟肘木나 人字形臺工의 發展形式인 臺股 등의 形式으로 짐작할 수 있다.

高麗時代 中期에 建立된 것으로 믿어지는 鳳停寺極樂殿의 建築과 統一新羅時代의 建築을 比較할 때, 보의 形態는 어느 쪽에 속하는 것인지 確實치 않으나, 뚜렷한 배흘림이 있으면서도 가늘고 날선한 기둥의 모습이나 柱斗와 소로 굽의 斷面이 뚜렷한 孤形으로 處理된 點, 그리고 柱間 昌枋 中央에서 柱心도리 밑 長舌를 받치는 臺工이나 大椽 위에서 덧보를 받치는 包臺工과, 덧보 中央에서 마루도리를 支撐하는 마루臺工 등의 모습이 人字形臺工의 發展形式이라는 點 그리고 全體 架構形式은 若干의 變化는 있었을 것이나 統一新羅時代의 木造建物の 경우와 거의 같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柱心に 놓인 斗拱과 昌枋 中央에 놓인 變形人字形臺工 위에 가로 길게 걸쳐진 長舌는 日本 唐招提寺講堂과 恰似하고 屋蓋架構 形式은 日本의 當麻寺本堂의 架構와 매우 닮았다. 이와 같은 點도 高麗時代 初期에서 中期에 이르는 木造建築이 統一新羅時代 木造建築을 거의 그대로 繼承한 것을 立證하는 것이며 따라서 鳳停寺極樂殿의 建築은 斗拱의 枹 끝의 모습만 翹頭形으로 바꾸면 그것이 그대로 統一新羅時代의 木造建築의 傳統을 이어받아 高麗時代 前期에 建立된 木造建築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鳳停寺極樂殿은 寺刹의 法堂 가운데서도 比較的 規模가 작은 建物에 속하며, 高麗時代 初期에는 이 보다 훨씬 큰 規模의 寺刹이 經營되었고 또 큰 規模의 法堂도 많았을 것이고, 특히 宮殿建物 가운데는 이것과는 比較할 수 없는 큰 木造建물이 建立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⑥ 그들 建物の 外樣이나 架構方式 등이 좀 더 多樣하고 變化도 많았을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나 建築의 樣式이나 架構에 있어서의 基本的인 形式은 鳳停寺極樂殿을 바

탕으로 推定復元된 高麗時代 初期의 木造建築의 모습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 (二) 中期에 導入된 新建築樣式

高麗時代 中期에 들어서 統一新羅時代에서 高麗時代에 전하여져서 高麗時代 初期에서 中期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建立經營되어왔던 建築樣式과는 다른 새로운 建築樣式이 導入 定着되었다. 이 새로 導入되어 定着된 建築樣式은 柱心包樣式이며 이 樣式으로 建立된 建築物을 一般적으로 柱心包집이라고 부른다.

이 새로운 木造建築樣式이 우리나라에 導入되게 된 動機는 中國 中原을 掌握하던 宋나라가 그 版圖를 華南地方으로 옮기게 됨으로써 일어난 것이다. 宋은 西紀 六九〇년에 中國 中原의 開封에 都邑하여 唐을 이어 建國하였으나 西紀 一二一三年에는 中國 東北地方에서 일어난 金나라의 浸攻壓迫으로 版圖를 南쪽으로 옮겨 臨安에 遷都하고, 그 후 西紀 一二七九년에 蒙古族에 의해 세워진 元나라에 의하여 滅亡된다. 宋이 南遷한 후에도 高麗는 公式의 元과의 交流를 緊密히 維持하면서도 非公式的으로는 南遷한 宋과의 交流도 적지 않았다. 이것은 高麗朝廷에서 宋朝 즉 漢族에 의해 建國된 王朝를 中國의 傳統王朝로서 崇拜하는 傳統的 交友親隣關係를 잊지 않은데 比하여 強力한 征服王朝인 元에 대해서는 內心 文化水準이 낮은 野蠻의 民族 즉 오랑캐 王朝라는 認識에서 나타난 것이었다. 이와 같은 緣由로 非公式으로 維持된 南宋과의 交流 過程에서 中國 華南地方에서 盛行하던 새로운 建築樣式이 高麗에 導入되게 된 것이다.

이 새로운 樣式의 建築은 원래 매우 큰 樑間을 갖고, 建物 內部에 기둥이 없는 넓은 空間을 만드는 데 適合한 架構手法으로 된 建築이었고, 斗拱의 첨차와 長舌를 最大로 活用한 構造로 된 建築物이었다. 따라서 中國에서나 또 이 樣式에 속하는 建築物을 導入한 日本에서는 斗拱의 出目이 五出目以上으로 展開되는 建物이 있고, 巨大한 規模의 木造建築物이 建立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高麗時代 中期에 우리나라에 導入되어 定着

되고 朝鮮時代 初期에 盛行된 이 새로운 樣式의 建築 즉 柱心包樣式의 建築物은 그리하지 않았다. 이것은 中國 華南地方은 그 樣式의 始源樣式의 發祥地로서 當然한 일이었으며, 日本에서는 이 系統에 속하는 樣式을 天竺樣 또는 大佛樣이라고 부르며, ⑦ 이 樣式의 導入原因이 西紀 一八〇年 末에 內亂으로 燒盡된 奈良에 있던 東大寺의 重建에 있었다. 東大寺에는 「奈良의 大佛」이란 別名으로 불리우는 巨大한 如來坐像이 있으며, 이 寺刹의 重建을 南宋에 세 차페나 來往했고 建築에도 經驗 있는 僧重源이 맡게 되었다. 重源은 이 大佛을 安置하기 위한 法堂을 비롯한 東大寺 여러 建築物을 커다란 空間을 얻을 수 있는 이 樣式의 建築物로 完成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日本에서는 이 새로운 樣式의 建築이 거의 完全한 形態 즉 그 樣式의 祖形建築이 그대로 導入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 새 樣式의 建築은 그 建築物이 풍기는 巨大하고 雄壯함이 日本人의 趣向에 맞지 않았던지 東大寺의 建物 以外에 몇몇 建物에서 試圖되었을 뿐 그 뒤에는 세워지지 않았다.

高麗에 이 새로운 樣式의 建築이 導入되는 過程은 日本의 경우와는 달랐다. 南쪽으로 版圖를 옮긴 南宋과는 元나라의 監視의 눈을 避하면서 非公式的으로 文物의 交流를 維持하는 過程에서 華南地方에서 盛行되고 그 당시 高麗에서는 보지 못하던 색다른 樣式의 木造建築物을 눈여겨 자세히 보고 온 사람에게 의하여 그 特徵的인 細部 形態들을 高麗에서 建立되던 在來의 木造建築의 細部에 附加시켜서 점차 새로운 建築樣式으로 定着시켜 나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로 定着된 所謂 柱心包樣式은 그 樣式의 祖形을 갖는 中國 華南地方의 建築樣式과도 다르고, 그 樣式을 完全한 形態로 導入했던 日本의 이 系統에 속하는 建築의 樣式과도 다른 우리나라에서 變形 創案된 우리나라에만 있는 木造建築樣式인 것이다. 이 새로운 樣式이 高麗 在來의 建築에 部分的으로 附加되어 새로운 建築樣式을 創案해 낸 것이라는 見解의 根據는 앞에서 言及한 바 있는 鳳停寺極樂殿의 建築樣式이 斗拱의 첨차 끝의 모양이나 樑의 形態 등에 中國 華南地方에서 盛行하던 이 樣式의 祖形建築의 樣式을

나타내고 있을 뿐 그 밖의 架構나 臺工樣式 그리고 기둥과 柱斗, 소로 등이 모두 新羅에서 高麗에 전해진 建築의 樣式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있다. 또 우리나라에 새롭게 創案 定着된 所謂 柱心包樣式的 完成된 段階에서 가장 오래된 建物 즉 現在로서는 柱心包樣式을 完成 定着시킨 建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高麗 中期에 建立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榮州의 浮石寺無量壽殿이다. 이 浮石寺無量壽殿은 二出目的 斗拱을 갖는 架構技法이 매우 閎濶하고 堅實하며 比較的 規模가 큰 建物이나 新羅에서 高麗로 이어지는 매우 機能의 이고 素朴한 建築樣式과 根本的으로는 別差異 없고, 中國 華南地方의 이 系統의 祖形建物이나 日本의 大佛樣 建物과는 差異點이 많은 建物이다. 그리고 이 浮石寺無量壽殿의 建築樣式이 우리나라의 所謂 柱心包樣式的 祖形이 되고 그뒤에 세워지는 이 系統의 樣式的 木造建物에서는 細部的인 變化를 나타내면서 계속하여 建立되어 왔고, 朝鮮時代 初期에 가장 盛行하였으며 中期와 末期에도 寺刹法堂에 採用되어오나 점차 그 數는 적어진다.

여기서 이 새로 定着된 木造建築의 樣式을 筆者가 「所謂 柱心包樣式」이라고 「所謂」라는 말을 붙여서 說明한 理由를 밝혀야 할 것 같다. 「柱心包」란 말은 木造建築의 外形上 가장 裝飾的 效果가 크고 木造建物の 莊嚴의 核이 되는 斗拱이 柱心 즉 기둥 위에만 있다는 뜻이다. 斗拱은 우리나라에서는 一般的으로 「공포」 또는 「포작」 등으로 부르며, 그것은 平面四角의 斗形의 下半部를 內傾한 傾斜 또는 弧形으로 만든 柱斗 위에 輻楯 모양으로 앞 뒤와 左右로 편는 첨차를 끼워 中央과 兩끝 위에는 柱斗를 縮小한 形態로 된 소로를 올리며 흔히 이를 二段 또는 三段으로 짜올리기도 한 裝飾的 架構部材인 것이다. 이 斗拱 즉 공포가 기둥 위에만 配置된 建物이 갖는 建築樣式을 柱心包樣式이라고 하고 이 樣式으로 만들어진 建物を 一般的으로 柱心包집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柱心包樣式에 對比되는 말이 이 樣式的 뒤에 高麗에 導入되는 또 하나의 새로운 樣式에 붙여진 이름인 「多包樣式」 즉 斗拱이 많이 架構되어 기둥머리 위 뿐만 아니고 기둥과 기둥 사이 上部에도 斗拱(一般的으로

空間包라고 한다)을 配置한 建築樣式的 名稱이 있다. 그리고 이 柱心包樣式과 多包樣式과의 사이에는 斗拱의 配置方法만이 다른 것이 아니고 斗拱의 形態, 架構部材, 內部施設 등에 뚜렷한 差異點이 있어 各己한 줄기의 흐름을 갖고 그 類形의 建物이 繼續되어 나가며 뒤에 가서는 部分的으로 서로 折衷하여 樣式的인 混用도 部分的으로 나타나는 하 나 分明히 다른 樣式的 系譜를 維持하는 것이다. 그런데 三國時代부터 高麗時代 初期에 이르는 여러가지 木造建築 가운데 斗拱을 裝置한 格이 높은 權威的 建物에 있어서는 모두가 斗拱을 기둥 위에만 架構하고 기둥과 기둥 사이 上部는 人字形臺工이나 童子柱形臺工 등을 設置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高句麗의 壁畫古墳에 나타난 建物圖나 柱形圖 등에서 도 알 수 있고 新羅時代의 石塔이나 石造浮屠 등에 模刻된 木造建築의 要素 등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柱心包樣式이라는 樣式名의 말의 뜻 그대로를 생각한다면 高麗時代 初期 以前에 있었던 斗拱을 裝置한 木造建物도 이 柱心包樣式속에 包含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筆者는 高麗時代 中期에 새로 우리나라에 導入되어 우리나라 個性에 맞게 定着된 새로운 木造建築樣式을 「所謂 柱心包樣式」이라고 한 것이며 萬一 高麗 初期 以前의 것도 이와 같은 樣式名을 붙인다면 「古式柱心包樣式」이라고 불러야 妥當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高麗 初期 以前의 斗拱을 裝置한 木造建物과 새로 定着된 柱心包樣式的 建物 사이에는 分明히 樣式的 差異가 있었던 것이므로 같은 系統의 建物로는 取扱할 수 없는 것이다. 또 現存하는 木造建物 가운데 高麗 初期 以前의 所謂 古式柱心包樣式的 建物이 전혀 없기 때문에, 柱心包樣式이라던 高麗 中期에 우리나라에서 定着된 한 建築樣式名이며 이 樣式으로 된 建物を 柱心包집이라고 하는 것이 現實에 맞는 것이다. 柱心包樣式的 建物에 있어서의 特徵은 斗拱을 기둥 위에만 配置하는 것 以外에도 여러가지 點을 指摘할 수 있다.

첫째, 기둥 위에 直接 柱斗를 올리고 거기에서 斗拱을 形成한다. 이것은 高麗 中期 以前의 建物에 있어서도 같았으며 高句麗에서도 있었던

斗拱裝置方法이다.

둘째, 斗拱의 出目は 二出目까지로서 三出目 以上으로 展開되지 않는다. 高麗 中期 以前의 建物에서는 一出目の 것은 確實히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⑧ 二出目 以上으로 展開되는 경우가 있었는지의 如否는 알 수 없다.

셋째, 柱斗와 소로 굽에 굽받침이 있다. 이 굽받침은 高句麗 古墳壁 畫의 柱形圖 속에서도 굽받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統一新 羅時代 以後에는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넷째, 첨차 끝이 傾斜지게 切斷되며 그 下端部가 雙S字形으로 彫刻 된다. 이와 같은 첨차 形式은 高麗 中期 以前의 建物에서는 보지 못하며 그 當時는 대부분 첨차 끝이 翹頭形으로 만들어졌던 것 같다. ⑨

다섯째, 첫 出目の 첨차가 柱斗 위에서 나오는 경우와 柱斗 밑의 枋의 鰭목 또는 草拱을 끼워서 첫 出目の 첨차로 만들어지고 柱斗 위의 첨차는 二出目の 첨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前者의 경우 比較的 規模가 큰 建物에 많은 것 같고 後者의 경우는 小規模 建物에 많은 것 같다. 또 高麗 中期 以前의 建物에서는 모두 柱斗 위에 첫 出目の 첨차가 놓이게 된다. ⑩

여섯째, 보(樑)의 斷面이 윗 邊이 넓고 네 모가 둥글게 각인 逆梯形으로 만들어지며, 보의 양 끝에서는 폭과 키가 줄어들어서 기둥에 끼인다. 이 보의 形態는 이 樣式 固有의 形式인지 혹은 그 以前의 建物에도 있었던 것인지 分明하지 않다.

일곱째, 天障架構가 없고 지붕의 연골을 밑에서 볼 수 있는 연등천장으로 만들어진다. 이것 역시 이 樣式의 特徵의 一點이며 高麗 中期 以前의 建物에서는 格子天障이나 椀天障 즉 斷面이 底邊이 없는 梯形으로 架構된 天障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여덟째, 天障架構가 없기 때문에 屋蓋架構材가 露出되어 下部에서 바라볼 수 있어서 이들 露出되는 部材에도 裝飾의 意匠을 加한다. 따라서 마루도리를 받치는 마루臺工들도 包臺工이나 波蓮臺工 등의 裝飾部材를

使用한다. 이것도 이 樣式 以前의 建物들에서는 天障架構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天障에 의하여 가리워지는 部分의 部材에는 裝飾의 意匠을 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홉째, 上·下의 架構材를 中間에서 支撐하는데 覆花盤이나 波蓮臺工과 같은 華麗한 彫飾을 갖는 部材를 使用한다. 高麗 中期 以前의 建物에서는 厚停寺極樂殿에서 본 것과 같은 人字形臺工의 發展形式의 臺工이나 高句麗에서 보는 것 같은 人字形臺工 또는 童子柱形臺工 등 簡略하고 素朴한 臺工을 使用했다.

柱心包樣式의 特徵은 대강 위의 아홉 가지들을 들 수 있으나 그 밖에도 柱心包樣式의 建物에서는 지붕이 많은 경우 맞배지붕을 採擇하는 傾向을 보이고, 기둥도 比較的 배흘림이 강한 굽은 기둥을 使用하는 傾向이 있다. 맞배지붕이 많은 것은 現存하는 柱心包樣式의 建物들이 比較的 작은 規模의 建物들이기 때문에 나타난 現象인 듯 하고, 기둥이 굽고 배흘림이 강한 것은 柱心包樣式을 構造的으로 볼 때 屋蓋 荷重을 斗拱을 통하여 기둥에서만 支撐하는 構造이기 때문에 構造的으로나 視覺적으로 安全感를 增大시키기 위하여 나타난 現象인 것으로 생각된다.

### (三) 末期에 導入된 新建築樣式

高麗時代 末期에는 元과의 親密한 國交關係로 因하여 또 다른 새로운 建築樣式이 導入되었다. 그것은 中國 東北地方에서 일어난 蒙古族이 점차 中國 中原을 차지하여 元나라를 建國하게 되었고, 한 때는 全 유럽을 席捲하기도 했던 元이 高麗에도 侵攻하였다. 高麗는 元에 대한 오랜 反抗 끝에 마침 和親을 맺어 王妃로 元의 公主를 맞이하는 등 親密한 交流를 維持하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中國 東北地方에서 盛行하던 斗拱이 많이 配置되는 莊重하고 威風있는 새로운 建築樣式이 元의 의하여 中國 中原으로 옮겨진 것이 高麗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 새로운 樣式을 多包樣式이라고 하고, 이 樣式으로 된 建物을 一般의 多包집이라고 한다. 多包樣式이란 包作 즉 斗拱이 많은 樣式이라는 뜻이며 柱心包樣式과는 달리 斗拱이 기둥 위 뿐만 아니고 柱間 上部에도 一具 以上 架

構되는 建築樣式이다. 이와 같이 柱間 上部에 臺工 대신에 斗拱을 架構하는 建物은 이 樣式的 建物에서 처음 시작되어 三國時代 以後 高麗時代 中期까지에는 보지 못했던 多包樣式的 出現은 東洋의 木造建築에 있어서는 큰 變革이며 一大 飛躍의 인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多包樣式이 導入되는 經緯는 柱心包樣式的 경우와는 달리 中國에서 建立되어 있는 多包樣式的 祖形樣式이 거의 그대로 高麗에 옮겨지게 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처음 高麗에서 세워진 多包樣式的 建物은 中國의 그 樣式的 建物과 꼭 같은 樣式的 建物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高麗 忠烈王三年(一二七七年) 元世祖의 딸인 王妃 齊國大長公主를 위한 新宮인 壽寧宮을 建立하는데 元의 工匠인 盧仁秀를 불러들여 施工케 했다는 事實과 元의 工匠에 의해서 建立된 宮闕建物이라 하면 그 당시의 情勢로 보아 當然히 元에서 愛用되고 威風 있는 建築樣式인 多包樣式的 建物을 建立하였을 것이며, 또 그 建物은 元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多包樣式的 建物과 꼭 같은 建物이었을 것이라는 推測에서 생각되는 것이다. 그리고 역시 高麗時代 末期에 建立된 多包樣式的 木造建物을 忠實히 模刻하여 만들어진 敬天寺十層石塔<sup>12)</sup>을 보면 우리나라에 導入되어 우리나라 個性에 맞게 變形 定着된 多包樣式과는 다른 多包樣式的 祖形樣式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와 같은 見解는 充分히 納得되는 事實이다.

이 多包樣式的 建物은 高麗時代 末期에 宮殿建物에 採用되고 이어 寺刹 建築에도 採用되기 시작하였으며, 다음 朝鮮時代에 들어서 各種 權威 建築에 많이 採用되어 우리나라 權威建築의 樣式的 主流를 이룬다.

多包樣式 역시 導入된 지 얼마 되지 않아 細部樣式에 變化를 나타내면서 朝鮮時代 初期에는 宮闕의 主要 建物과 都城의 門樓 寺刹의 主要 法堂등에 採用되었으며 中期 以後에는 各種 權威建築에 널리 採用되었다. 우리나라에 定着된 多包樣式的 建物은 꼭 같은 建築樣式을 導入하여 그 곳에 定着시킨 日本의 이 系統의 建物이나 中國의 이 樣式的 祖形이 된 建築樣式的 建物과도 다른 우리나라의 獨特한 建築樣式으로 變

化 定着된 것이다.

多包樣式이 우리나라에 導入된 直後에 세워진 木造建物은 남아 있지 않고, 이미 細部に 樣式的인 變化를 나타낸 建物들만이 남아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高麗時代 末期에 建立된 木造建物의 細部를 忠實히 模刻하여 만든 敬天寺十層石塔에서 多包樣式이 導入된 直後의 多包樣式的 建物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이 石塔에 模刻된 斗拱의 柱斗나 소로의 굽은 分明한 曲面을 나타내고 있으며, 日本의 이 系統의 建築樣式인 그들이 말하는 禪宗樣 建物에서도 柱斗와 소로 굽이 曲面으로 處理된 點으로 보아 元來의 斗拱 모습은 柱斗나 소로의 굽이 曲面으로 만들어졌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는 우리나라에서 變形 定着된 多包樣式的 建物 以外에 導入된 直後의 多包樣式的 祖形으로 만들어진 木造建物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그 細部的인 特徵을 正確하게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現存하는 우리나라 多包樣式的 建物에 나타난 특징에 대해서 말할 수 밖에 없다. 多包樣式的 特徵은

첫째, 기둥과 昌枋 위에 넓고 두툼한 部材로 된 平枋을 둘러고 그 위에 斗拱을 짜 올리며, 보통 斗拱은 기둥 윗部分과 柱間 上部에 一具以上 架構設置한다. 이 平枋은 高麗 中期 以前の 建物에는 없던 것이며, 이는 柱間 上部에도 斗拱을 配置하기 때문에 斗拱을 安定되게 配置하기 위한 臺의 役割을 하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多包樣式的 建物에서는 기둥 위에는 꼭 斗拱을 配置하나 드물게 建物의 側面과 後面에는 기둥 위 以外에는 기둥에 關係 없이 平枋 위에 斗拱을 配置한 建物이 있다.

둘째, 斗拱의 出目は 三出目 以上の 경우도 있고, 建物의 外部와 內部에 따라서 出目數가 다른 경우도 있다. 이것 역시 高麗 中期 以前の 建物이나 柱心包樣式的 建物에서는 보지 못한 形式이고 특히 建物 内部와 外部의 出目數가 다른 것은 内部 天障을 높이기 위한 方法으로 많은 경우 外部 보다 内部가 한 出目 많다.

셋째, 柱斗와 소로 굽이 傾斜된 平面으로 만들어지며 椀받침이 없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多包樣式的 元來 모습은 굽이 曲面으로 만들어진 것이나 우리나라에서는 導入 후 얼마 되지 않아 傾斜平面으로 變形되어 定着한 것이다.

네째, 침차 끝의 切斷面과 下角部를 圓弧形으로 만들거나 切斷面을 垂直으로 만들고 下角部만을 圓弧形으로 만든 소위 翹頭形으로 處理한 다. 이와 같은 침차 모습은 柱心包樣式的 경우와는 確然히 區別되는 것이며, 高麗 中期 以前의 建物의 침차와는 같은 모습이다.

다섯째, 建物 앞으로 突出되는 침차 즉 諸椽침차는 二出目椽부터 그 위에 架構되는 침차 끝을 下傾한 斷面 五角形의 牛舌로 만든다. 이와 같은 形態 역시 柱心包樣式的 경우의 仰舌와 다른 形態이며, 正確하게는 알 수 없으나 高麗 中期 以前의 建物의 경우와도 다른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高麗 中期 以前의 建物에서는 諸椽침차도 翹頭形으로 處理된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보(樑)의 斷面은 長方形이며 기둥에 架構되는 끝도 그 폭만 縮小되고 높이는 變하지 않는다. 이 보 形態 역시 柱心包樣式과는 다른 것이다.

일곱째, 屋內에 天障架構를 設置하고, 많은 경우 格子天障으로 꾸민다. 이 點도 柱心包樣式과는 크게 다른 點이다.

여덟째, 天障이 있기 때문에 天障에 의하여 가리워지는 屋蓋架構材들은 屋內에서 보지 못하고 따라서 架構材들에 裝飾의 意匠을 加하지 않는다.

아홉째, 上·下의 架構材를 中間에서 支撐하는데 柱間 上部에서는 斗拱(空間包)이 擔當하고 그 밖의 部分에서는 包臺工 또는 簡潔한 童子柱를 使用한다.

이 밖에도 多包樣式的 建物에서는 많은 경우 지붕을 팔각지붕으로만 만들고, 맞배지붕인 경우에는 建物 側面 즉 合閣部 아래에는 斗拱을 配置하지 않은 것이 原則이다. 또 기둥은 建物の 規模에 대하여 比較의 가늘게 만들고 배흘림도 약하다. 팔각지붕이 많은 것은 多包樣式 自體가

莊重하고 威風 있는 樣式이며 이 威風에 팔각지붕이 잘 調和되고, 建物全體를 더욱 威風 있게 보이기 때문인 것이다. 기둥이 가늘은 것은 多包樣式的 建物이 構造的으로 屋蓋荷重을 많이 配置된 斗拱을 통하여 平枋에 전달하고 平枋에서 기둥과 壁體에 荷重을 고루 分散 傳達하는 構造이기 때문에 相對的으로 기둥이 가늘어지는 것이다.

### 〔三〕 建築遺構

이 時代에 建立된 木造建築 가운데 現存하는 것은 柱心包樣式이 導入된 이후의 建物이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高麗時代 中期에 우리나라에 새로 導入된 柱心包樣式的 建物 以前의 建物 즉 新羅에서 이어받았던 建築樣式으로 된 建物は 전혀 남아있지 않다. 柱心包樣式的 建物로서 現存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柱心包樣式的 細部가 導入 附加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樣式으로 定着되기 以前의 過渡的인 樣式으로 된 高麗時代 中期에 建立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鳳停寺極樂殿과 柱心包樣式을 完成하여 定着시킨 浮石寺無量壽殿이 있다. 이 두 建物は 우리나라 現存 最古의 建物이며 이 밖에 高麗時代 末期에 建立된 몇몇 建물이 있다. 浮石寺祖師堂과 修德寺大雄殿이 이에 속하며 寺刹建物 以外에는 江陵客舍門이 이 時期에 속한다. 또 銀海寺居祖庵靈山殿은 朝鮮時代初期의 建物이라는 意見과 高麗時代 末期에 建立했다는 見解도 있는 建物이다. 北韓의 黃海道 黃州郡 州南面<sup>⑧</sup>에 있는 成佛寺應眞殿은 忠肅王一四年(一三二五年)에 建立하였고 朝鮮時代 中宗二五年(一五三〇年)에 改造된 建物이나 建立當初의 架構材들이 比較的 잘 남아있는 建物이다. 多包樣式的 建物로서 現存하는 것은 北韓에 있는 心源寺普光殿과 釋王寺應眞殿의 두 建物 뿐이며 모두 高麗時代 最末期에 建立된 建物들이다.

#### 〔鳳停寺極樂殿〕

鳳停寺는 慶北 安東郡 西後面 台庄洞 天燈山 中腹에 位置하며, 新羅 文武王一二年(六七二年)에 義湘大師에 의하여 創建되었다고 傳한다. 寺

刹에는 이 極樂殿 以外에 極樂殿 앞에 高麗時代에 建立된 三層石塔과 朝鮮時代 初期에 建立된 大雄殿이 西쪽에 있고, 이들 두 建物 사이 앞쪽에 朝鮮時代 中期에 建立된 古今堂이 있다.

極樂殿은 正面三間, 側面四間の 單層 맞배지붕으로 된 比較的 規模가 작은 建物이며 一九七三年에 完全解體復元한 建物이다. 이 建物은 東西로 길게 자리잡은 境內의 西쪽에 位置하여 南向하고 있다. 前面에 만 다듬질된 石材를 使用한 石造基壇 위에 自然石으로 된 礎石을 놓고 기둥을 세웠다. 解體修理前의 建物은 建物 앞에 낮은 마루를 設置하였고 建物前의 各柱間에는 左右에 두 짝의 匹살문으로 된 들문을 달았고 中央에도 역시 같은 形式의 分間문을 裝置하고 있었다. 建物 前面에 있던 마루를 없애고 正門에 板門을 設置하고 左右 夾間에 살창을 낀 것은 解體時의 調査에 의하여 原來의 모습으로 復元한 것이다. 解體修理時 建物の 中央間 宗道里 밑에서 發見된 墨書銘에 의하여 이 建物이 一三六三年(恭愍王一二年) 屋蓋에 대한 修理工事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이 建物の 實際 建立年代는 적어도 이 重修年代보다 一〇〇年 또는 一五〇年정도 앞서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重修例이기 때문에 一三世紀에 建立된 것으로 보아 틀림 없을 것이다.

기둥 위는 斷面方形의 昌枋을 끼워 기둥머리를 連結시키고, 기둥 위에 柱斗를 놓아 斗栱을 받게 했다. 斗栱은 簡潔한 形式으로 밖으로 出目을 한 出目 내어 外目道里를 받게 하였다. 柱斗에 結構된 첨차와 살미는 모두 같은 모습이며 단지 크기만 다르게 만들었다. 斗栱은 初諸工 위에서 道里 方向으로 長舌를 보내고 그 위에 대침을 놓았고, 外目道里 밑에 行工첨차 없이 直接 短長舌가 道里를 받는다.

內部架構는 中央間 後面에 高柱를 두 개 세우고 大樑을 올렸고, 그 위에 覆花盤을 얹어 包臺工을 짰다. 包臺工 위에는 宗樑을 얹어 上中道里와 宗道里를 잇는데, 宗樑 中央에도 覆花盤을 올렸다. 中道里는 前面 쪽에서는 大樑 위에 걸친 長舌로부터 짜 올렸고, 後面에서는 高柱 위에 올렸다. 宗道里에서 柱心道里에 이르는 사이에는 內反된 솟을 合掌

을 各道里 사이에 끼워 補強하였다.

이 建物の 構造形式上의 特徵으로는 우선 柱心包樣式的 建物로서는 比較的 가능하고 배흘림이 弱한 기둥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뒤에서 말하 는 浮石寺無量壽殿의 기둥과 比較하면 그 特徵이 顯著하게 나타난다. 이 밖에도 기둥 위에 놓인 柱斗와 斗栱의 소로가 모두 굽을 內反된 曲面으로 處理하였고, 굽받침이 없는 點과 大樑 위에서 中樑을 받치는 覆花盤이나 中樑 中央에서 宗道里를 받치는 覆花盤과 昌枋 中央에서 그 위의 柱心道里 밑의 長舌를 받치는 覆花盤 등이 모두 三國時代에 볼 수 있었던 人字形臺工에서 一般的인 覆花盤으로 變形하는 過渡的인 形態인 것으로 보이는 매우 簡潔한 形態로 만들어진 點이다. 이들 特徵은 모두 新羅時代에서 高麗時代에 전해진 木造建物에서 볼 수 있었던 樣式으로 믿어진다. 또 기둥 위의 斗栱의 初諸工 위에서 道里方向으로 長舌를 걸고 그 위에 대침을 놓았으며 外目道里 밑에 行工 첨차없이 直接 短長舌가 道里를 받도록 한 點들은 浮石寺無量壽殿 以後의 建物에서는 보 기 어려운 古式의 架構法을 나타낸 것이다.

#### [浮石寺無量壽殿]

浮石寺는 慶北 榮豐郡 浮石面 北枝里에 있으며 新羅 文武王一六年(六七六年) 義湘國師가 王命을 받들어 創建한 名刹이다. 境內에는 高麗末에 建立된 祖師堂을 비롯하여 創建當初에 建立된 것으로 보이는 三層石塔과 石燈 및 幢竿支柱 등이 있다. 無量壽殿은 浮石寺의 本殿이며 建物 內部的 서쪽에는 東向한 須彌壇에 우리나라 塑造佛로는 最大 最古의 塑造如來坐像을 安置하였다. 이 佛像의 形式은 마치 釋迦如來와 같은 形式이나 佛殿名이 無量壽殿이며, 東向한 佛像인 點으로 보아 無量壽佛 즉 阿彌陀如來像으로 생각되고 있다. 現存하는 建物은 一九一六年에 實施된 解體修理時에 發見된 墨書銘에 一三七六年(禰王二年)에 再建된 것이라고 記錄되어 있었으나, 같은 時期에 역시 解體修理된 後說하는 祖師堂이 一三七七年의 再建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이들 두 建物の 樣式的인 比較를 통하여 學界에서는 일찍부터 無量壽殿이 祖師堂보다

一〇〇年 혹은 一五〇年 정도 앞서 建立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一三七六年의 再建 記錄은 그 후에 있었던 解體修理나 大規模 補修工事を 말한 것으로 解釋되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鳳停寺極樂殿과 아울러 우리나라 現存 最古의 木造建築物이며 그 建立 年代도 一三世紀로 推定되는 단 두 채의 建築物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建築物는 花崗石으로 築造한 地台石과 面石·甲石을 갖추었고 前面 세 곳에 石造階段을 設置한 本格的인 壇狀基壇 形式으로 된 單層基壇 위에 섰으며 正面 五間, 側面 三間の 南向한 單層 팔각지붕의 柱心包樣式이다. 建築物의 前面은 中央柱間과 左·右 夾間에는 格子살문의 分間문을 달아 出入口로 삼았고, 兩側間에는 같은 格子살문의 簡潔한 窓을 달았다. 기둥은 배흘림이 강한 굵직한 圓柱이며, 기둥 위에는 簡潔한 內·外 二出目の 柱心包樣式의 基本形態를 갖춘 斗拱을 올렸다. 斗拱은 柱와 소로의 굽은 內反된 曲面이며 그 밑에 굽받침이 있고, 첨차와 살미 兩端은 若干 內傾한 傾斜面으로 處理하였으며 下端部는 S字形을 두 번 連續시킨 形態로 彫刻하고 있다. 架構形式은 內陣高柱 위에 二出目の 斗拱을 올리고, 그 위에 斷面이 모가 등하게 짝인 逆梯形的 柱心包樣式 特有的 形態로 된 大樑을 얹었으며, 大樑 上面 端部에는 包臺工을 올려서 이것이 宗樑을 받게 하였다. 宗樑 中央 上部에는 梯形臺工 위에 접시받침과 나비形 草拱을 올려 宗樑 兩端部에서 올라온 內反된 寸을 合掌이 加勢하여 宗道里를 받친다. 內陣 바깥 즉 外陣에서는 內陣高柱 머리에 끼워진 椽樑의 끝을 邊柱 위에 架構된 內·外 2 出目の 斗拱 위에서 받치고, 內陣高柱 위의 斗拱의 대침 끝이 층방이 되어 그 끝이 柱心道里를 받치며, 이 층방 끝 밑을 椽樑 위에 架構된 층방 끝이 外目道里를 받친다. 建物 內部에는 天障架構 없는 연등·천장으로 本尊佛은 多包樣式으로 만들어진 단접 안에 安置되었다.

이 建築物의 樣式上에 있어서의 重要한 點으로는 柱心包樣式의 基本形式을 가장 잘 남긴 建築物이며, 또 架構方法이나 細部技法에 後世 建築物과는 달리 裝飾的 意匠이 적다는 點이고, 우리나라 柱心包樣式을 앞에서

말한 鳳停寺極樂殿에서의 過渡的인 形式을 지나 完成 確定시킨 建築物라는 點에 있다. 즉 이 浮石寺無量壽殿이 現存하는 木造建築物에서 볼 때, 우리나라 柱心包樣式의 祖形建築物이라는 것이다.

#### [浮石寺祖師堂]

無量壽殿의 뒷편 東쪽 山 위에 따로 자리한 正面 三間, 側面 一間的 맞배지붕의 작은 建築物이다. 이 建築物은 浮石寺에 住錫하던 高僧祖師의 眞影을 奉安하는 建築物이며, 一九一六年에 實施된 解體修理工에서 發見된 墨書銘에 의하여 一三三七年(禪王三年)에 圓應國師에 의하여 重建되어 그 후 서너 차례 補修된 建築物임이 밝혀졌다.

建築物는 破石을 亂積한 낮은 基壇 위에 세워졌으며, 無量壽殿에 비해 柔弱한 배흘림을 갖는 圓柱 위에 斗拱을 올렸다. 斗拱은 外部에서는 二出目이며 內部에서는 一出目이다. 이것은 斗拱의 小침 즉 아랫 첨차를 기둥머리에 끼워진 昌枋의 鰓목으로 만들었고, 따라서 建物 外部에서 는 첫 出目の 첨차가 기둥머리 즉 柱斗 밑에서 나오고 柱斗 위에 놓인 첨차가 대침 즉 二出目제의 첨차가 되고, 建物 內部에서는 柱斗 위의 첨차 만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大樑은 이 斗拱 위에 놓이고, 大樑 끝이 앞으로 뻗어나와 斗拱의 대침 끝 위에서 外目道里를 받치고, 기둥 윗 부분에서는 柱心道里를 받친다. 大樑 위에서 는 앞 뒤에 包臺工을 두고 이것이 宗樑을 받치며 이 宗樑 끝이 中道里를 받친다. 宗樑 中央에는 키가 높은 梯形的 臺工을 세우고, 宗樑 끝에서 內反되면서 올라온 寸을 合掌과 같이 宗道里를 받치는 매우 簡潔한 架構形式으로 만들어졌다. 建築物의 前面에는 中央柱間에 板門으로 된 門扉가 있고 左·右間에는 살문의 窓을 設置했다. 이와 같은 建物 前面의 裝置는 앞에서 말한 鳳停寺極樂殿의 復元된 모습과 같은 것으로 이 建築物이 만들어졌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남긴 것이라고 생각된다.

祖師堂과 無量壽殿의 構造樣式的인 差異를 比較한다면, 그 建物規模의 大小와 架構形式의 繁雜과 簡潔함 등이 큰 差異點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것은 그 建築物들이 갖는 機能의 差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差異點으로는 기둥의 배흘림이 弱해진點과 柱斗와 소로의 굽이 傾斜된 平面으로 만들어지고, 굽받침이 없어진點, 그리고 斗拱의 침차 끝이 傾斜지게 切斷되거나 下端部에 S字形이 連續된 形態로 彫刻되지 않은點, 宗道里를 받치는 솟을합掌이 더욱 曲率이 큰 內反된 部材를 사용한點과 斗拱의 첫 침차가 柱斗 밑기둥머리에서 나온다는點들이다. 이들 差異點 가운데 斗拱의 침차 모습과 첫 침차가 柱斗 밑에서 나오는 것 이외의 形式은 모두 無量壽殿에 比하여 祖師堂이 늦게 建立된 것임을 나타내는 樣式的인 變化를 나타내는 것이다. 침차의 모습이 簡略화된 것은 이 建物の 規模가 작아서 建物 全體의 調和를 위해 繁雜함을 避하기 위한 變形으로 생각되고, 첫 침차가 柱斗 밑에서 나오는 形式은 이 뒤의 小規模 建物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것으로 柱心包樣式의 또 하나의 架構原理에 의한 것이 아닌가 싶다. 萬一 그렇다면 이와 같은 架構形式의 祖形을 이 祖師堂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修德寺大雄殿〕

修德寺는 忠南 禮山郡 德山面 斜川里에 있으며, 新羅時代 智命法師에 의하여 創建되었다고 하고, 一說에는 百濟時代에 建立된 寺刹의 法燈을 이어 온 寺刹이라고도 한다. 境內에서 百濟時代의 솟막새기와가 出土된다고도 한다. 大雄殿은 正面 三間, 側面 四間의 單層 맞배지붕으로 된 典型的인 柱心包樣式의 建物이다. 一九三七年에 實施된 解體修理工事に서 花盤端面和 침차 下端面에 墨書로 記錄된 「至大元年戊申四月廿四日 修德寺造成衆目抄記……」와 「……至大元年戊申四月十七日立柱」 등의 銘文에 의하여 一三〇八年(忠烈王三年)에 建立된 建物임이 確認되었다. 따라서 建立實年代를 正確히 알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木造建物로서 다른 여러 柱心包樣式의 建物과의 樣式的 差異를 比較檢討하여 이들 建物の 建立年代를 推定할 수 있는 하나의 基準이 될 수 있는 建物로서 매우 重要な 것이다.

建物は 前面에 花崗石의 長大石을 累積한 巨大한 基壇 위에 세워졌으며, 2列로 配置된 高柱 앞 뒤에 楹間을 내어 高柱와 高柱 사이에는

角柱로 된 間柱를 세워 側面을 四間으로 만들었고 內部는 中央에 넓은 柱間을 둔 三間으로 되었다. 高柱 위에 柱斗를 올렸고 柱斗에는 침차와 소로를 올려 大樑의 끝을 支撐하고, 大樑 끝이 高柱 위의 二出目째 침차 같이 만들어진다. 大樑 위 앞 뒤에는 包臺工을 올려 宗樑을 支撐하며 宗樑 中央에는 波蓮臺工을 놓아 宗樑 끝에서 큰 曲率로 올라오는 솟을합掌과 같이 宗道里를 支撐한다. 邊柱는 高柱 허리에 끼워진 楹樑의 끝을 위에 架構된 二出目の 斗拱 위에서 받치며 그 끝은 그 아래의 諸工침차 끝과 같은 모양의 牛舌로 만들었다. 斗拱의 形式은 柱心包樣式의 典型的인 形態이나 柱斗와 소로의 굽은 傾斜된 平面으로 變하고 굽받침은 남아있다. 역시 規模가 작은 建물이기 때문에 斗拱의 첫 出目の 침차를 기둥머리에 끼워진 昌枋 끝이나 草拱으로 만들고 柱斗 위에는 二出目째의 침차가 놓인다. 全體的인 架構手法는 浮石寺 無量壽殿과 恰似하고 細部樣式 역시 비슷한點이 많다. 두 建物에 있어서의 差異點을 본다면, 우선 기둥 위의 二出目の 斗拱에 있어 그 첫 出目の 침차가 기둥의 柱斗 밑에서 나오는 것이나 이것은 浮石寺 祖師堂과 같은 것이다. 또 斗拱의 建物 內部 二出目째의 침차는 波蓮文으로 된 裝飾의 部材로 變하고, 大樑이나 楹樑 위에서 그 위의 部材를 支撐하는 包臺工의 침차 역시 안쪽에서는 波蓮文의 裝飾의 部材로 變하고 바깥쪽은 二出目째의 침차가 牛肩樑形式의 층보로 變하는點이다. 이와 같은點들은 曲率이 큰 솟을합掌과 아울러 無量壽殿보다 建立時期가 늦은 것을 意味하는 樣式的 變化로서 無量壽殿을 一三世紀의 建物이라는 것을 立證하는 하나의 資料가 된다.

이 建物の 側面觀은 우리나라 木造建物の 가장 아름다운 造形을 나타내는 한 例로서 弱한 배흘림을 갖는 기둥을 連結하는 輕快한 引枋과, 高柱와 邊柱를 잇는 楹樑, 高柱와 高柱 사이를 맞잡는 大樑 등의 直線材와, 이들을 支撐하는 매우 裝飾的 效果를 노린 包臺工과 曲率이 큰 牛肩樑들이 이루는 構成上의 調和와 이들이 壁面을 區劃하는 洗練된 構圖美는 完璧한 한 美術을 表象한 것이라 하겠다.

〔銀海寺居祖庵靈山殿〕

銀海寺는 慶北 永川郡 淸道面 新源洞에 있으며 新羅 憲德王元年(八〇九年)에 惠哲國師에 의해 開基되었고, 당초에는 海眼寺라고 稱했던 寺刹이라고 한다. 伽藍은 中世 以後 여러 차례에 걸친 火災로 因하여 大部分의 建物은 近世에 建立된 것이다.

靈山殿은 不規則하게 採石된 長大石과 雜石으로 築造하여 前面 中央에 簡單한 石造階段을 設置한 比較的 높은 基壇 위에 伸 길쭉한 建物이다. 正面 七間, 側面 三間の 單層 맞배지붕의 柱心包樣式的 建物이며 架構는 簡潔하고 側面 中央間을 形成하는 앞뒤 두 줄의 高柱와 이들 高柱의 앞과 뒤에 平柱를 세웠다. 高柱와 平柱는 樑樑으로 連結되어. 平柱 위의 斗拱에 의해 樑樑 끝이 받치며 이것이 柱心道里를 받고, 出目으로 된 枳차는 樑樑 끝을 받치면서 그 끝에서 外目道里를 받쳤다. 高柱머리에는 枳 昌枋을 돌리고, 기둥 위에는 柱斗를 올려 역시 包作으로 大樑 끝을 받으며, 大樑 끝은 中道里를 받친다. 大樑 中央 上面에는 키가 큰 梯形的 臺工 위에 二重으로 된 包作을 올려서 宗道里를 反曲된 寸을 合掌과 같이 받치고 있다. 建物の 細部를 보면 斗拱의 柱斗와 소로가 多包이 傾斜된 平面으로 되었고 楹반침은 없다. 이것은 後代의 補修에서 變形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柱心包樣式的 斗拱의 柱斗와 소로가 多包樣式的 그것과 같은 形態로 變하는 가장 오래된 實例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柱斗와 소로 以外的 形態는 比較的 柱心包樣式的 初期的인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 斗拱의 枳차 끝이 垂直에 가까운 傾斜로 切斷되었고, 그 下端의 S字形 曲線이 二段으로 꺾인 매우 簡單한 線으로 만들어졌고 大樑이나 樑樑의 斷面 역시 柱心包樣式的 特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또 이 建物에 있어서의 特徵的인 部分은 平柱 위에 架構된 斗拱의 形態와 大樑 위에 놓여서 枳차 斗 밑 기둥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다른 建物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枳차 밑에 걸쳐서 다시 枳차 公으로 이 枳차를 받쳐서 마치 매우 키가 큰 枳차처럼 되어 있다. 이것은

이 出目的 枳차의 길이가 一般的인 建物の 그것에 比하여 길게 뻗었기 때문에 이것을 補強하기 위한 手法인 것으로 보인다. 또 大樑 中央에 놓인 臺工은 높직한 梯形柱 위에 二重으로 된 包作을 올렸는데, 아랫 包作의 枳차는 초공끝같이 彫刻했고, 윗 枳차는 逆梯形的의 板狀으로 만들었다. 이와 같은 宗道里를 받치는 枳차 臺工의 形式은 다른 建物에서는 보지 못하는 形式이다.

이 靈山殿의 建立時期를 朝鮮時代 初期로 보는 見解도 있으나, 그 樣式的 簡潔함과 細部的인 여러 要素들에 古格의 樣式的 特徵을 남기고 있는 點으로 高麗時代 末期로 보는 見解가 一般的이다.

〔江陵客舍門〕

江陵市 龍岡洞에 있는 江陵客舍의 大門으로 지금은 客舍 建物은 없고 이 門만 原자리에 남았다. 基壇은 前面이 높고 中央에 石造階段을 設置하였으며 後面은 客舍마당으로 통하는 낮은 갓돌만 돌리고 있다. 建物は 前面 三間, 側面 二間の 맞배지붕으로 된 柱心包樣式이다. 기둥은 앞뒤 줄에 배흘림이 큰 圓柱를 세우고 가운데 줄에는 方柱를 세워 門扉를 裝置하였다. 기둥 위에는 二出目的의 斗拱을 올렸으며, 그 첫 出目的의 枳차는 昌枋 끝의 鰓목이 되어 柱斗 밑에서 나오고, 二出目째의 枳차가 柱斗 위에 結構되었다. 이들 外柱列의 斗拱이 直接 大樑을 받치며, 大樑 끝에는 包臺工을 올려서 그 枳차가 앞으로 길게 뻗어 枳방이 되어 斗拱의 二出目 枳차 끝에까지 나간, 大樑의 끝단 위에 놓여 外目道里를 받는다. 大樑 上面 앞 뒤에는 波蓮臺工을 두고 臺工 위에 架構된 包作의 枳차의 바깥 끝이 길게 뻗어 牛眉樑 形式이 되어서 기둥 위에서 大樑 끝 部分에 놓인 包臺工 위에 도달하여 柱心道里를 받는다. 또 大樑 앞 뒤에 놓인 波蓮臺工에 架構된 包作은 宗樑 끝을 받치며 宗樑 끝은 中道里를 받친다. 宗樑 中央에는 두터운 梯形的의 板臺工을 올리고 이 臺工이 宗道里를 받친다.

이 建物の 細部樣式을 보면 뚜렷한 배흘림을 가진 굵직한 기둥이나, 斗拱의 柱斗와 소로같이 曲面으로 處理되고, 楹반침을 갖는 點들과 枳

차 끝의 傾斜진 斷面과 그 下端部의 S字形의 彫飾 등이 모두 柱心包樣式的 古式을 나타내는 것이며, 修德寺大雄殿의 細部樣式보다 더 오래된 要素를 남기고 있다. 이러한 점 등으로 보아서 한 때 이 建物の 建立年代를 朝鮮時代 初期의 것으로 본 일도 있으나 當然히 高麗時代 末期의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 지금은 그것이 學界에서의 一般의인 見解이기도 하다.

〔心源寺普光殿〕

心源寺는 黃海道 黃州郡 龜洛面에 있으며 普光殿은 이 寺刹의 本殿이다. 建物の 模規는 正面三間、側面三間이며 單層 平枋지붕으로 된 多包樣式이다. 기둥머리와 昌枋 위에 둘러진 두텁고 넓직한 平枋 위에 斗拱을 올린 多包樣式的 特徵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 斗拱의 出目은 內·外 모두 三出目이다. 이 建物の 가장 特徵的인 것은 建物の 側面에 配置된 斗拱이 建物の 隅柱 위의 것을 除外하고는 모두 기둥 位置와는 關係없이 等間隔으로 配置된 점이다. 이와 같은 斗拱의 配置方法은 建物の 側面에서는 크게 美的 意識을 쓰지 않고 純粹한 構造力學的 要件 즉 上部 荷重을 斗拱에서 받아, 이를 平枋을 통하여 고르게 기둥과 壁體에 傳達하려는 意圖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와 같은 斗拱의 配置方法은 多包樣式的 構造의 特徵에 忠實한 合理的인 것이며 多包樣式에 있어서의 斗拱 配置方法의 始源의인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建物과 같은 斗拱의 配置方法을 갖는 建物로는 朝鮮時代 中期인 一六一五年(光海君七年)에 重創된 江華 傳燈寺大雄殿이 있을 뿐이며 心源寺普光殿과 아울러 우리나라 建築史上 매우 重要한 遺構이다.

斗拱의 모습은 柱斗와 소로에는 이미 굽의 曲面이 없�지고 傾斜된 面으로 處理되고, 二出目과 三出目の 첨차(諸工) 끝은 잘막하고 그 등에 若干의 曲을 보이며 아래로 傾斜진 牛舌이 되어 多包樣式的 古式을 나타내고 있다. 建物 內部에는 格子天障을 架構하고, 이 建物과 同時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佛壇上部의 단집역시 柱心包樣式的 古格을

나타내는 宮殿形으로 만들어졌다.

이 建物の 建立年代는 正確히 밝혀진 바는 없으나 寺傳에 의하면 一三七四(恭愍王二三年)이라고 한다. 建物이 갖는 樣式上的 古格으로 보아서는 妥當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釋王寺應眞殿〕

釋王寺는 咸鏡南道 安邊郡 文山面에 있으며 李成桂가 登極하기 이전 에 그에 의하여 創建된 寺刹이다.

應眞殿은 前面五間、側面二間の 單層 맞배지붕으로 된 多包樣式的 建物이며, 斗拱은 內·外 모두 二出目の 簡潔한 形式을 가졌다. 이 建物은 多包樣式的 建物이라고는 하나 斗拱은 기둥 윗 부분과 各 柱間의 中央 上部에 各各 一具씩만 配置되고, 左右로 짜여진 첨차도 一般的인 多包樣式的 建物보다는 길게 만들어졌으나, 斗拱과 斗拱 사이가 매우 넓게 보이며, 매우 素朴한 感覺을 주는 建物이다. 이와 같은 斗拱의 配置는 下代의 多包樣式 建物の 경우와 같이 建物の 威風을 強調하기 위하여 많은 斗拱을 配置하는 方法을 採擇하지 않고 上部荷重을 下部에 傳達하는데 꼭 必要로 하는 數의 斗拱만을 架構한 것으로 단순히 美的 效果 또는 權威的 感覺을 表現하기 위한 目的에서 繁雜하게 斗拱을 架構한 建物에 比하여 매우 堅實한 形式이며 역시 多包樣式的 原初的인 形式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建物の 建立年代는 一三八六年(禑王二年)이기는 하나, 많은 部材들이 後代에 있었던 補修工事로 變形되어 당초의 細部樣式이 바꾸어진 곳이 많다.

註

- 一、拙稿「三國時代의 木造建築」〈考古美術〉一五〇輯。pp. 三六三七、美術史學會。一九八一、六。
- 二、上揭註一。
- 三、文化財管理局「雁鴨池」pp. 二四九—二五八 參照。一九七八。
- 四、金東賢「木造建築樣式」〈考古美術〉一六二·一六三合輯。『統一新羅時代木造建築研究』pp. 八四八—八六參照 美術史學會。一九八七·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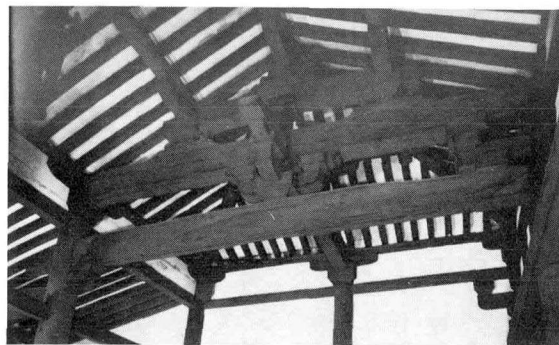
- 五、上掲註四 및 拙稿「三國史記志의 新研究(屋舍條)」(新羅文化祭學術發表論文集)第二集。慶州市,一九八一。
- 六、〔高麗圖經〕卷五·六「宮殿」條參照。
- 七、太田太郎〔中世の建築〕彰國社。一九五七、日本
- 八、湖巖美術館所藏「新羅白紙墨書大方慶佛華嚴經」佛殿圖에서 보면 柱斗 위에서 앞으로一出目나온 첨차 끝 소로 위에 다시 平三斗를 올려 外目道里를 받친 그림이 있다。
- 九、上掲註四 八六。
- 一〇、高句麗古墳壁畫의 建物圖나 柱形圖 및 註八의 「華嚴經」佛殿圖와 中國의 慈恩寺大雁塔의 佛殿圖 · 日本所在 古代木造建物等에 의해 推測된다。
- 一一、前掲 註九。
- 一二、松山信三。〔韓國の中世建築〕 三七五—三七九 參照。
- 一三、敬天寺十層石塔은 三層基壇 위에 선 一層塔이나 四層의 虛層을 層으로 보지 않아 一〇層塔으로 이름지어졌다。
- 一四、光復以前의 地名임。



〈圖 2〉日本 唐招提寺 講堂 前面



〈圖 1〉鳳停寺 極樂殿 前面(復元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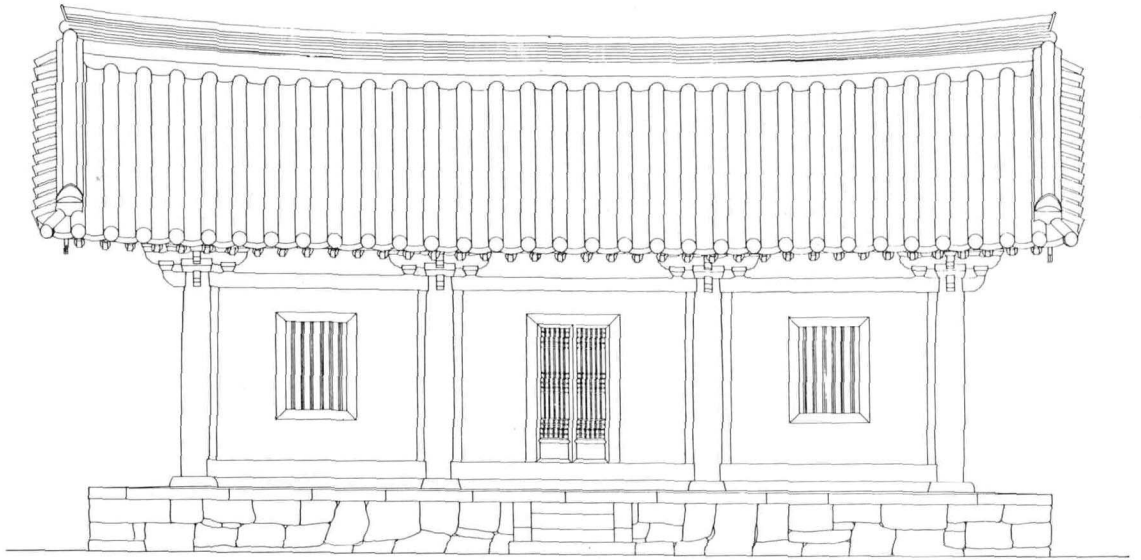


〈圖 4〉日本 當麻寺 本堂 內部 架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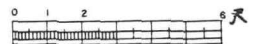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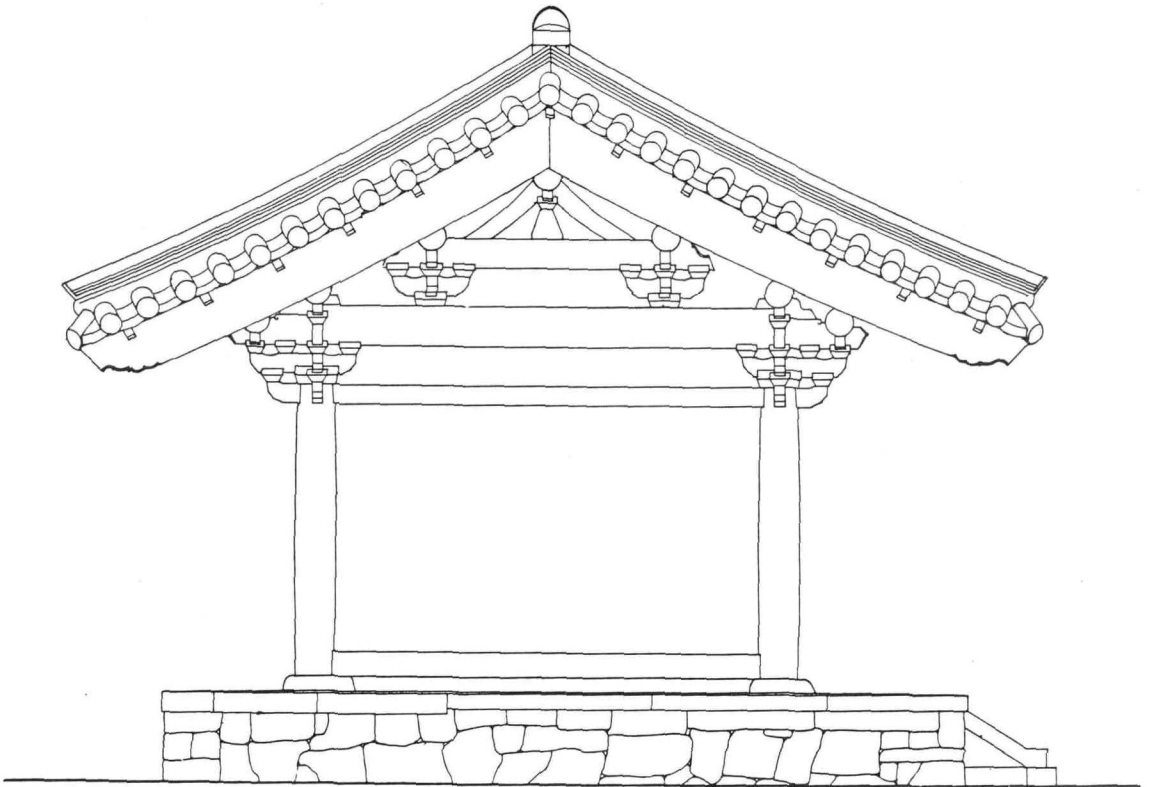


〈圖 3〉鳳停寺 極樂殿 內部 架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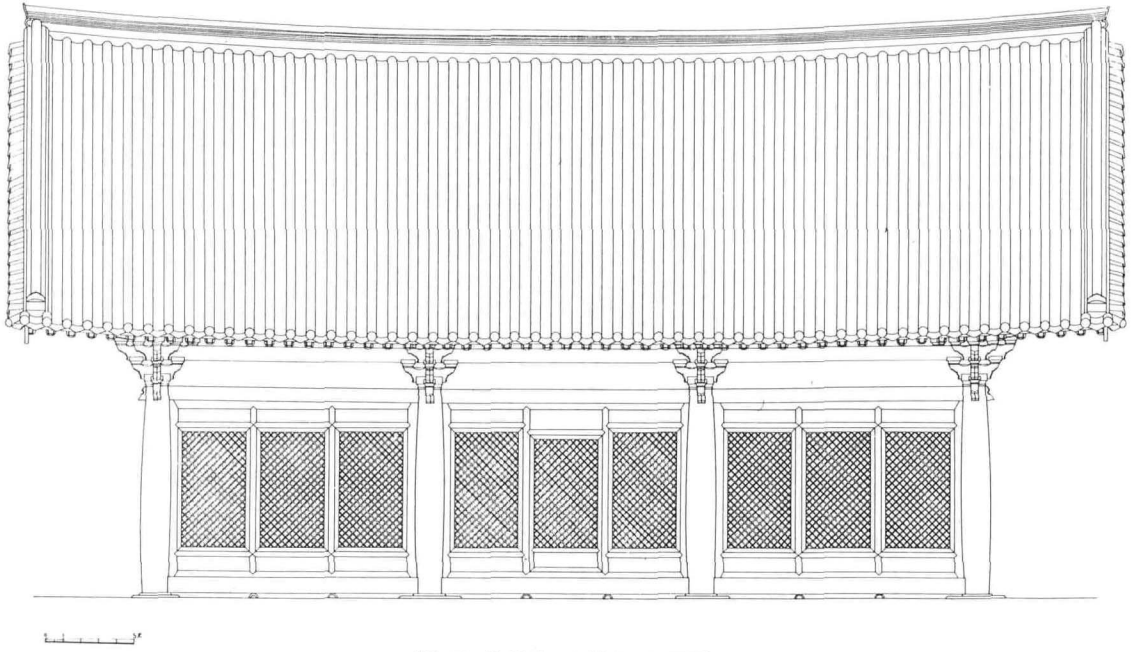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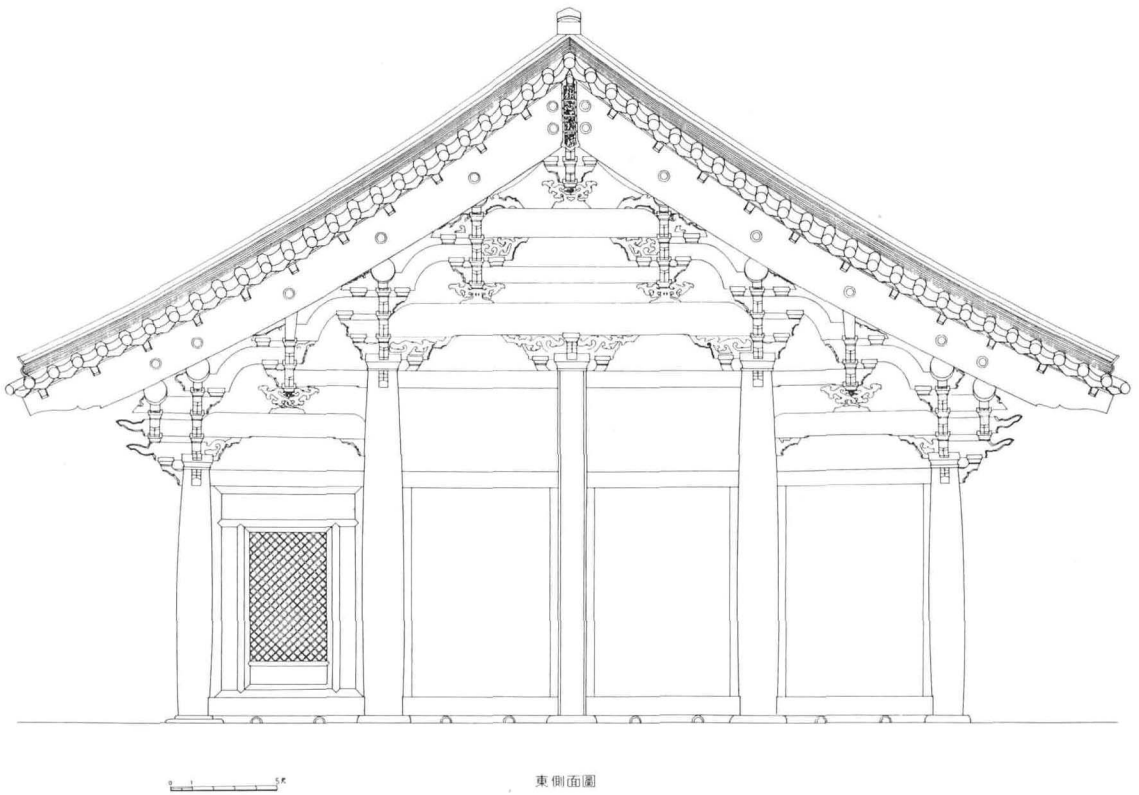
〈圖 7〉浮石寺 祖師堂 正面圖



〈圖 8〉浮石寺 祖師堂 西側面圖



〈圖9〉修德寺 大雄殿 正面圖



東側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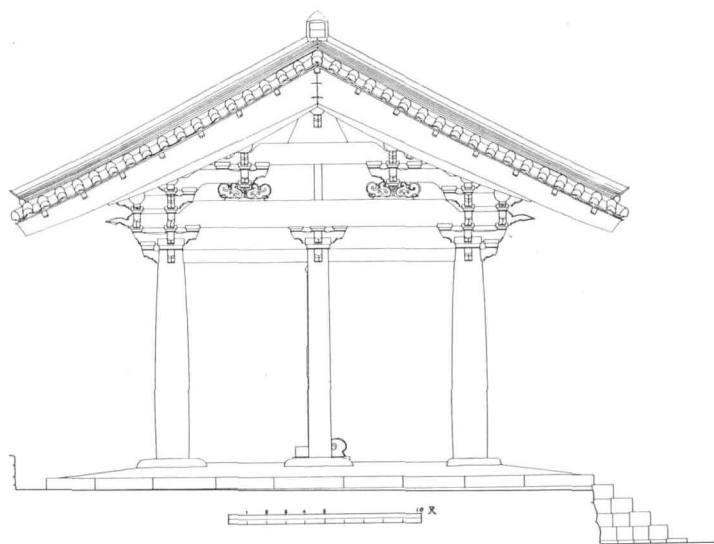
〈圖10〉修德寺 大雄殿 東側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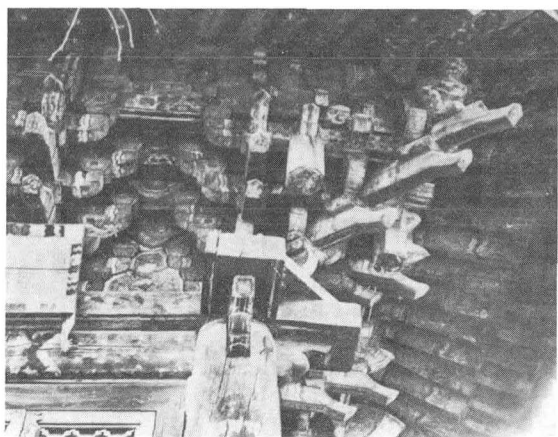
〈圖12〉銀海寺 居祖庵 靈山殿 內部 架構



〈圖11〉銀海寺 居祖庵 靈山殿 前面 斗拱



〈圖13〉江陵客舍門 西側面圖



〈圖15〉心源寺 普光殿 斗拱



〈圖14〉心源寺 普光殿 前面